

# 故 蒼海 金永昌教授 靈前に 이 글을 바치나이다

延世大 齒科大學 學長 金 用 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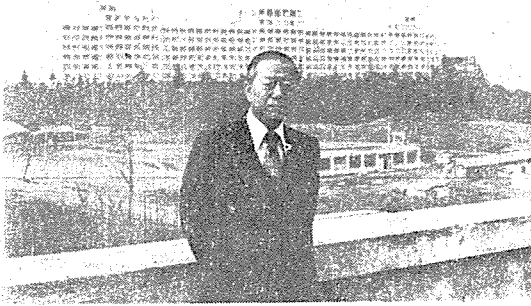
<朝鮮大 齒大學長 在任時 學長室에서>

故 金교수와 필자와의 관계는 지금부터 30餘年前 1947년 8월, 어느날 아침 옛서울치대의 건물이 있던 중구 소공동 3층 조직학교실이었다고 기억한다.

바로 내가 두달전에 구강외과학교실에 전임강사로 들어온지 얼마 안있어 김교수는 옛 城大부속병원 치과에 있다가 齒大와 併合하는 과정에서 치대로 옮겨오게 되었고, 또한 임상보다도 기초학에 흥미가 있었던 탓으로 구강조직학교실을 개설하면서 전임강사로 임명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을 시발점으로해서 서로가 전공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김교수와 필자와는 파란만장의 치대역사와 近世한국치과외학에 있어서 가장 처참했던 6·25라는 민족적 참상과 국정의 혼란을 겪어야했던 半平生의 인간역경을 같이해온 동료가 되기도했다. 年壽이 丁巳生이라 올해 회갑을 서로 자축한다는 뜻에서도 그랬거니와 우리들은 서로가 어딘지 통하는데가 있어서 전공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아침 저녁 시간있으면 내가 김교수방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우정을 깊게했다.

본래 故金교수는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어서 여러교수들과 어울려 노는것을 그리 즐기지도 안었지만 또한 전공하는 조직학과 임상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감을 느껴서인지, 고인의 생존시에라도 그리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朝鮮大學校 全景과 在任當時 金學長, 同大學 初代學長으로서의 構想, 그리고 훌륭한 大學을 만들기 爲한 執念은 한時도 그의 머리에서 倖난적이 없었으리라.

부친은 當時 日本國岡山醫大를 졸업한 젊은 醫師이였으나, 短命이어서 倖곳 외할머니宅에서 소학교와 경기중학을 거쳐 경성치전에 입학했던 것이다.

日帝時 많은 한국인치과의사들은 개업을 하였지만 김교수는 개업보다도 학구적인면에 더욱 흥미를 느껴서 當時城大부속병원치과에 교수로 채용되여, 임상도하면서 기초학분야인 치과조직학 연마에 몰두하게 되었다.

사실이지만 김교수는 근본적으로 치과임상에는 취미뿐만이 아니라 성격상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하는 따위를 할수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倖곳 치과임상에 적은 두고 있었지만 조직학교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해방을 맞게 되었고, 47년여름에 치대로 다시 적을 옮겨왔든 것이다.

고인은 전술한 바대로 직선적이며 때로는 고집불통이기도 했기때문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않고 온갖 돈과 정열을 기울이는 성격이기도 했다. 예컨대 카메라가 새로운型이 나왔으면 무엇을 팔아서라도 꼭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고 때로는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외양을 즐기었기 때문에 김교수의 모습은 항상 단정한 머리와 양복, 구두등 깨끗한 차림을 했다.

어느때인가 술좌석이였다. 고인은 본래 술을 즐길줄 모르고 다만 한두잔 정도 마시는 반면 담배만 은 출창 입에물고 있는 애연가이여서 보통 하루 두세갑정도 피운다고한다. 담배도 6.25전에는 전혀 못 피우든것이 6.25사변통에 어찌다 피우기 시작한 것이 대애연가로 되고 말었다고 한다.

서로가 술을 주고받는 술좌석에 섞이면 남이 주는 술잔은 한사람도 빼노치 안고 전부 받아 마시고 또한 꼭 변배하다보니 무리해서 많이 마시다보면 그것을 견딜수없어 변소에가서 마신술을 전부 토하고는 다시 제자리에와서 또 술을 마시고, 또 토해 버리고..... 이러케 마시다보니 김교수는 술 잘마시는 사람으로 오인받아 참으로 난처해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보니 더욱 난감해 하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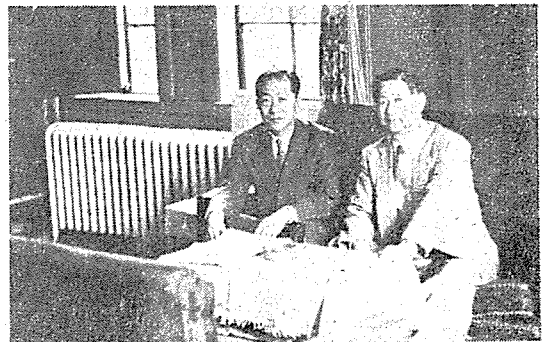
이러한 내성적인 성격이 말년에 자기의 병을 노출시키지 안으려는 성격 탓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다고 하게했다.

서울치대재직시 6층 자기방까지 「에레베이터」가

다만 학문하는 일이든가, 자기의 취미로하는 「라디오」나 「카메라」따위를 가지고 여러가지 만드는일은 거의 전문가를 능가하는 권위마저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숨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북괴군이 서울을 점령한후 고인의 가택수색을 당하였을때 장농속에서 고성능 「라디오」수신기라든가, 고급 「카메라」등 많은 물건이 발견되어 그것때문에 간첩으로 오인받아 총살직전에 까지 위협한 고비를 넘겨야하는 비운을 당하기도 했었다.

고인은 본래가 조실부도한 외아들로 태어나 온갖 인간적인 비극을 어려서부터 받아온탓으로 온갖 물정에도 어두웠던 탓인지 부친이 남긴 유산이 얼마인 지도 모르고 자라기를 외할머니이 손에 의하여 자랐다고 한다.



1947年 故 朴明鎭 서울齒大學長과 함께, 當時 故人은 敎務課長으로서 學長을 充實히 補佐했다.

있는데도 한번도 타고 오르내리지 않은것도 고인을 아는사람들은 특기할만 하다고한다.

필자는 김교수보고 「김교수는 저혈압자(低血壓者)이니 장수할 것이요…… 나는 고혈압자니…… 먼저 죽게 될 것이요……」라는 진담반 농담을 한 기억이 난다.

고인은 참으로 평소에도 건강했다 '일년두고 한 번도 감기에 앓은일도 없었고 항상 규칙적인 출퇴근을 계속했다.

고인의 취미로는 혼자서, 아니면 두세명의 자녀를 데리고 등산을 즐기기도 했고, 명승고적을 찾아 「김삿갓」여행하는 것을 인생의 낙(樂)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한국땅 어느산, 어느 골짜기, 무슨절, 어떤해변등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두루 여행을 즐기었다. 그때마다 경치좋은 곳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것을 유일한 취미로 생각하기도했다. 가정에서는 화초 가꾸기도 남다른 것이 있어서 고인의 연구시에도 항상 화초가 노여 있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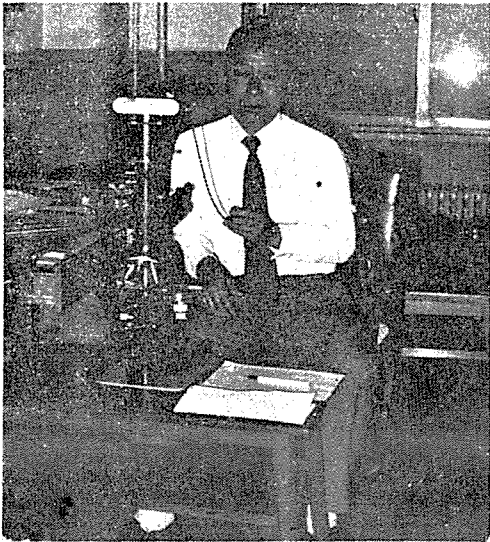
이러한 반면 학구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공헌을해서 많은 제자들이 사회에 배출되기도 했고, 교단에서 강의도하는 교수로 그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가 서울치대 학장으로 재임시에는 언제나 공정하게 평가하여 한가지라도 사사로움일로 그릇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울대에서 조선치대로 자리를 옮겨갈때에도 나는 쌍수를들고 환영해주었고, 그의 건강을 전혀 근심하지도 안했다.



若冠 41歲로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學長으로 就任 解放后 無秩序했던 學校建設에 總力을 傾注했다.



서울大學校 解剖學教室 主任教授 時節에 오로지 學者로서 研究와 學生 指導로 一貫했으며 16編의 自著 論文과 127編의 指導論文을 남겨 놓았다. 그의 雅號를 蒼海會(會長 金基燦)는 問下生으로 構成되었으며 會員이 무려 30餘名을 헤아린다. 지난 1977年 6月 25日은 故人의 回甲이기도하며 同問下生會인 蒼海會에서는 記念 論文集製作中 이런 悲報를 접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컨대 그분의 건강은 서울대에 재직시부터 점진적으로 발병이 된듯하다고 지금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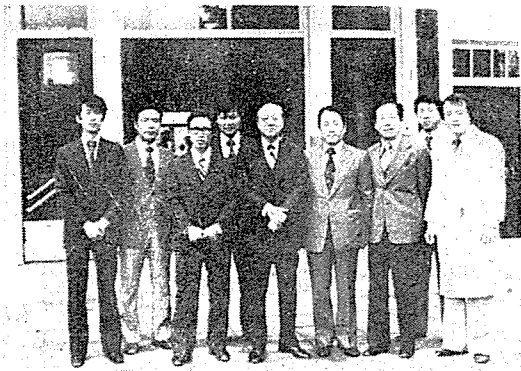
여하튼 이제 이러한 뉘두리와 아쉬움을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는 나보다도 먼저갔다. 오히려 내가 먼저 가야될 일인데 그가 먼저 타계(他界)하였다. 옛날 그와의 대화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가고만 이 마당에 또 무슨말을 하겠는가!

蒼海! 김교수여 이승에서 못다한 여러가지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혈혈단신 혼자서 날아 극락의 세계로 돌아가서 연연세세 안주하기만 바라노라.

필자도 머지않아 김교수의 곁으로 가겠으니…… 그리고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잊어버리고…… 영영 그곳에서 평안하기만 옆드려 비노라. 呼呼也 人生은 꿈이었구나……

### 蒼海 金永昌 教授 略歷

本 籍: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3街 140의 2  
現 住 所: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佛光洞 222의 2



1977年 4月 15日 朝鮮大 齒大 校舍앞에서 全 敎職員과 함께, 이 寫眞이 永遠한 追憶의 章으로 記錄될 줄은 너무도 몰랐다.

生年月日 : 1917年 6月 25日生

逝 去 : 1977年 6月 1日

學 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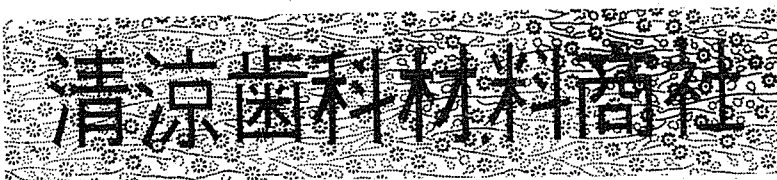
- 1935. 3 :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 卒業
- 1942. 9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卒業
- 1958. 3 : 醫學博士 學位받음(서울大學校)

經 歷

- 1942. 11~1945. 10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副手補
- 1945. 10~1946. 10 京城大學 醫學部 助手

- 1946. 10~1948. 4 서울大學 醫科大學 敎授 助務員
- 1948. 4~1951. 12 서울大學 齒科大學 專任講師
- 1951. 11~1958. 1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務課長
- 1951. 12~1954. 5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助敎授
- 1954. 5~1957. 5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副敎授
- 1957. 5~1976. 2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授
- 1958. 1~1958. 7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學長署理
- 1958. 7~1962. 7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學長
- 1958. 9 서울大學校 人事委員會 委員
- 1958. 11 서울大學校 大學院委員會 委員
- 1959. 4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委員會委員
- 1959. 4 서울大學校 評議員會 委員
- 1960. 서울大學校 保健診療所 運營委員會 委員
- 1961. 9 서울大學校 學生醫療保險運營委員會 委員
- 1962. 5 서울大學校 企劃委員會 委員
- 1963. 2 서울大學校 研究委員會 委員
- 1963. 3 서울大學校 大學院 齒醫學科 口腔解剖學專功 主任
- 1970. 12 미쉬간大學校 齒科大學 招請敎授로 渡美
- 1971. 9 서울大學校 綜合計劃委員會 委員
- 1971. 11 學術論文 評價委員會 委員
- 1975. 12 大韓口腔生物學會 會長
- 1976. 2 朝鮮大學校 齒科大學 學長
- 1976. 5 大韓齒科醫師協會 教育審議委員會 委員

□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



대 표 양 해 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4의 2 (청량리 역앞)

전화 (96) 1110